

70일의 기적



70일의 기적 오픈 행사 (출처 한대신문)

2009년 한양대학교 7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행사이다. 사랑의 실천이라는 학교의 표어에 부응하는 취지로 70일간 7,000명의 헌혈 기네스에 도전을 하였다.

오픈행사에는 [장근석](#), [하석진](#), [이정진](#) 등 한양대 출신 배우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. 또 헌혈나눔 1호로 김종량 총장 및 학생대표, 교직원대표가 헌혈을 했다.

2009년 3월 9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이 행사는 KBS 사랑의 리퀘스트 생방송을 끝으로 마감했다.

총 헌혈자는 5,883명이었으며 5월 16일에는 한 곳에서만 729명이 헌혈했다. 오후 6시부터는 한 시간 동안 동시에 104명이 헌혈하여 70일 최다 헌혈(5831명 잠정통계), 1일 최다헌혈(769명 잠정통계), 동시 최다헌혈(120명) 3개 부문에서 한국 기네스 기록으로 등재됐다.^[1]

관련 기사

- 연합뉴스, 2009.05.16 **한양대 '70일간 기적'에 6천211명 헌혈**
- 경남신문, 2009.05.16 **한양대서 70일간의 '헌혈 릴레이'**
- 한대신문, 2009.05.31 **70일 간의 기적, 헌혈자 5831명 기록**

1. [↑] 출처 한양대학교 백서 2009-2012